타들어가는 한반도 가상시나리오

가뭄 인재인가 천재인가

'10년 장마에 10년가뭄'이란 말이 있다.

지난해부터 한반도는 평년이하 수준의 강우량으로 가뭄에 시달리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단비가 가끔 내리기는 하지만 해갈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정부에서는 인공강우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 가상시나리오 통해 가뭄의 심각성을 알아보자. (편집자)

김 희 원
(환경운동연합간사)

한반도의 '물난리(?)'는 이미 지난 여름에 예고된 것이었다. 지난 여름의 폭염과 가뭄이 올 겨울 물부족 사태를 가져온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 여름의 '기상 이변'은 왜 발생했을까. 기상 전문가에 의하면 국내 가뭄 현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지구 온난화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으나 그것이 중위도 지방의 기단배치를 변화시킨것은 분명하다고 한다. 그리고 91년의 필리핀 피나투보 화산폭발이 지구온난화를 더욱 부채질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한반도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가뭄은 현대과학으로도 어쩔 수 없이 하늘만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재난인가. 물론 인간의 힘으로 자연재해를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 한반도의 겨울 가뭄은 세계기상이변과는 관련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올겨울 강우량은 오히려 예년보다 많기 때문이다. 대구의 경우 예년 1월의 평균 강우량인 20.5㎜보다 많은 24.1㎜가 내렸고, 광주도 예년의 38.6%보다 많은 42.3%의 강우량을 보였다. 이번 가뭄은 엘리뇨현상에 의한 지난 여름철 기상이변의 긴 그림자인 것이다. 비만 조금 오면 물난리를 걱정해야 하고 지금처럼 비가 오지 않으면 가뭄때문에 고통을 받아야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평소 하늘만 쳐다보는 정부의 물관리대책 부재의 당연한 결과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비가 너무 적게 내려 흡족한 비가 오지 않는 이상,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80년대이후 정부가 물부족 상태의 도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물확보'를 등한시해 유래없는 물기근이 초래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말 현재 하천수, 지하수, 댐 공급량을 합한 우리나라의 연간 용수공급능력은 3백10억3천7백만톤, 수요량은 2백90억3천9백만톤이다. 가뭄에 대비한 용수 예비율이 6.9%에 불과해 약간만 가물어도 엄청난 물기근을 겪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게다가 온대몬순 기후대에 속하는 우리나라의 강우는 5~9월에 집중돼 여름이나 가을에는 홍수를 겪어도 겨울부터 봄사이에 물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그동안 정부는 여름에 내린 비를 모았다가 겨울과 봄에 쓰는 등 물관리를 소홀히 했다. 더구나 최근 공업화와 인구증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에 물부족 현상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물사정이 좋아 풍년이 든 해에도 울산, 포항, 여천 등 공업단지에서는 공장가동에 고생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모든 물부족현상을 그동안 땜 몇개 쌓아놓고 불확보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정부의 안이한 물관리정책이 지금의 물난리(?)를 인재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가뭄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계속되는 가뭄은 우리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기상청은 이번 가뭄이 쾌소되려면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는 6월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본래 겨울에 내리는 강수량은 여름처럼 많을 수가 없다. 통상 1월에서 4월은 평균 강수량이 1백50㎜~3백㎜ 정도에 불과하다. 결국 6월까지 흡족한 비를 만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95년 3월3일 현재 제한급수현황은 5일급수가 경남 남해읍과 전남 신안군 흑산면의 1만3천8백명, 3일급수는 2만3천여명, 격일제 급수는 26만여명, 시간제 급수는 38만여명이다.

가상 시나리오

4월에 들어서도 목마른 대지를 흡족 적셔줄 비는 오지 않았다. 모내기 준비를 하는 농민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다. 모내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이전에 최소한의 비라도 오지 않으면 기상대의 예보대로 6월에 가물이 어느정도 해소된 이후인 7월로 모내기를 미루어야 할 상황이다. 쌀생산이 감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수입개방으로 농민들의 멍울진 가슴이 가뭄으로 피멍 들게된다. 남녘의 들판에는 황량한 대지와 메마른 바람만이 횡하게 불뿐이다. 낙동강 수계의 안동·임하·합천댐은 3월중순부터 방류량을 줄이기 시작하더니 4월 들어서는 부산지역에도 제한급수가 적용된다. 이와함께 낙동강의 4개 다목적댐이 발전가동을 중단해야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제한급수 지역에 생수를 공급하던 생수업체들도 가뭄이 장기화되자 일일 지하수 용출 "물문제"에 대한 행사와 캠페인을 중심으로 치루어 국민들이 물절약과 정부의 장·단기 대책을 촉구. 잔인한 4월은 그야말로 잔악하게 우리 생활 곳곳을 무차별적으로 할퀴고 갔다.

5월도 예외는 아니었다. 잔뜩 작심한 것처럼 가뭄은 더욱 기승을 부렸다. 5월5일 어린이 날에는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로 인해 호흡기와 안과·피부 어들자 수영강과 세차장의 영업시간을 대폭 단축시켰다. 5월 들어서도 모내기를 할 정도의 비가 오지 않아 결국 우려했던대로 7월로 모내기를 연기하는 일이 벌어졌다. 가공용으로만 쌀을 수입하기로 한 정부의 애초의 계획에서 부족분의 쌀을 더 수입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게 된다. 이 문제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정치권 재야·대학가·사회단체 등 규탄의 목소리가 나왔다. 문제가 이 지경 까지 이른데에 따른 책임을 물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정부는 환경부·농림수산부·건설교통부 장관을 경질시켰다. 한편 음료수 주류업계 등 물을 상품으로 만드는 업체들은 수질이 갈수록 오염되어 불량제품이 많아져 자체 생산을 줄이거나 가동을 중단해 버린다. 이렇게 되자 가뭄이 심하지 않은 북한에서 생산한 생수·음료수·주류가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게되어 불티나게 팔리게 된다. 북한물품 수입업체들은 떼돈을 벌게 되고, 보다 많은 물량을 신속하고 간단한 절차를 통해 수입하기 위해서 수입업체들이 정부의 공식적인 통로를 이용하게 해달라고 건의한다. 정부는 내부의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가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남북이 새로운 분위기로 다시 만나 화해의 길을 열어나가는 첫걸음이 되었다. 그리고 남북한 당국은 올해 여름 광복과 민족해방·50주년을 맞이하여 남북당국과 민간이 함께하는 민족통일 대축전 개최에도 협의하게 된다.

화해의 길로

이제까지 가뭄이 장기화됐을 때를 가상해서 공장 가동중단에서 통일문제까지 언급해 보았다. 지금의 가뭄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인재"이다. 이상기후와 정부의 안이한 물관리 대책이 지금의 물공황(=가뭄)을 만들어낸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가뭄과 홍수 등 비상사태 대비한 물관리 체계를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 또한 이번 가뭄을 계기로 이에 대비한 예비저수지, 건설하구, 저수지건설, 수자원 개발과 관리의 일원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가뭄과 홍수는 반복된다. 가뭄을 이겨내기 위한 긴싸움은 곧 홍수에 대한 대책으로 바꿔어야 한다. 가뭄이 발생하면 가뭄만, 홍수가 나면 홍수만 대비하는 즉흥성과 무계획성, 불감증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것이다. 이번 유럽의 홍수난리에도 해수면보다 낮은 지대가 많은 네덜란드에서 인명피해가 극히 적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인간이 자연을 마구 대하고 훼손하는 행위의 생활양식을 존재시키며 생활하는 한 자연의 재해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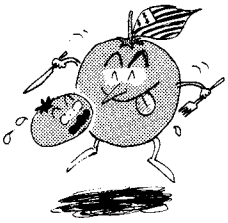
가뭄에 대비한 용수 예비율 겨우 6.9%
반복되는 재해, 입체적 대비책 필요

세시봉

배종근 편집장

신토불이 의식개혁 필요

한때 압구정동 일대를 휘젓고 다니던 졸부 2세들을 '오렌지족'이라 불렀다. 쾌락만을 추구하며 퇴폐적인 삶을 살아가던 그들 앞에 붙여진 '오렌지'는 그후 소비문화의 상징이 되어 한 시대를 풍미(?)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오렌지'가 제주 농민들을 아연실색케 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에 따라 올해 의무적으로 수입키로 한 미국산 오렌지가 태풍처럼 몰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미국에서 수입된 오렌지 1천55t이 가락동 시장을 비롯한 전국 농수산물 시장에 상장되었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처음으로 공개입찰된 수입오렌지는 18㎏ 기준으로 1백3개짜리가 3만2천원에, 88개짜리가 3만4천원에 팔려 도매값이 국내산보다 훨씬 싼 값인 1㎏당 평균 1천8백3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처음으로 상장경매된 뒤부터 미국산 오렌지는 당도가 높고 값이 국내산 보다 훨씬 싸다는 이유로 백화점이나 수퍼마켓 등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로인해 제주산 감귤 가격은 일시에 폭락했다고 한다.

수입오렌지는 오는 4월까지 5천톤, 연말까지 1만5천톤이 수입될 예정이어서 이대로 간다면 오렌지류인 제주산 네블오렌지와 청견의 폐작이 불가피해지고 감귤값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제주의 감귤농업은 제주도민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산업으로 어떠한 구세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제주농업이 몰락하는 아주 심각한 사태에 빠지게 된다.

제주도는 미국산 오렌지의 국내 시판에 따른 감귤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올해 4백61억8백만원을 들여 감귤 생산시설을 현대화해 유통효율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것이 제주감귤을 살리는데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대적인 생산시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국내 소비자들, 다시말해 당연히 우리 농산물을 먹어야 할 국민들의 의식이고 태도이다. 신토불이(身土不二)라는 '구호'는 차지하더라도 우리 흙에서 나는 우리 농산물을 먹어야 한다는 '국산 애용'의 정신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그 무엇으로도 이 문제를 풀어내지는 못한다.

작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율이 8%를 상회했고, 국민 GNP도 상승했다. 어느정도 잘 살게 되었다는 얘기다. 살림형편이 나아졌으니 좀 비싼 우리 농산물을 먹는다고 '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국내산 감귤을 지키기 위해, 더불어 우리의 입맛을 지키기 위해 국민 모두의 의식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의학에세이 ③ 임상일지

출근거부증(?)

"나 출근 안해!"

"왜?"

"피곤하니까"

얼마전 모 회사의 이러한 광고를 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앙증 맞으면서도 다소 가볍게 웃고 넘어가던 광고속에서 우리는 '출근거부증'이라는 정신질환증세를 발견할 수 있다.

누구나 한번쯤은 무단결근을 생각해 봄직한 일이지만 자주 이러한 생각을 한다면 이미 '이상'이 생긴 경우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고 드라마 같은 얘기인듯한 출근거부증세를 호소하는 '출근거부증'환자가 정신과를 많이 찾고 있다.

A씨는 유능한 은행원으로 대출을 담당하고 있다. 어느날 커다란 융자계약을 체결하자 상사가 노고를 치하하면서 술좌석을 마련해 주었다. A씨는 성취감이 앞서 과음을 했다. 다음날 잠에서 깨어보니 출근시간이 30분 늦어 있었다. '그래, 어제 일도 잘 해결했고, 몸도 괴곤하니 하루 쉬지뭐!'라며 다시 자리에 누웠다. 그러나 눈을 떴을때엔 오후 3시였다. 그제서야 계약이 한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A씨는 다음날 아침에도 괴로울 반, 걱정 반으로 출근을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상사와 출근하기로 약속을 한 A씨 출근하지 않을 수 없었고 얼마가지 않아 다시 같은 상황이 반복되게 되었다.

A씨의 경우 이런 상황이 반복됨으로써 '만성불연휴식증후군'상태가 되는데 회사인의 출근거부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사이에서도 등교거부증세가 나타나고 있다.

학생들의 경우 학업 및 과제의 중압감, 또는 적성과 전공의 불일치로 오는 회의감 등이 등교거부증세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이병의 원인은 무엇인가.

최초의 우울증이나 대인공포증 등이 업무의 과다, 자신감 결여 등과 만나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이어 출근거부증으로 표현되며 이것이 신체적 증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출근(등교)거부는 회사(학교)가 아니라 본인이 '가기 싫다'는 의사거부로 인해 생기는 병이다. 이 증세는 치료이전에 스스로의 의식전환의 노력이 절실하다.

그러한 의식전환의 방법으로 독서나 스포츠등의 기본전환행위보다는 이무것도 안하고 명상하듯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좋다. 조용히 생각에 잠겨 감감해 있는 자기 자신과 대화하다보면 숨겨진 자아를 발견하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보다 바람직하다.

이 증세가 심각하다면 정신적인 치료와 함께 전문가의 심리적 요법에 의해 마음속 깊은 곳의 문제를 찾아낼 필요가 있다.

(학술부)

Enjoy Life, Enjoy Communication —

Let's GO HiTEL!

할일은 많고 시간은 빼듯한 캠퍼스 —
자 이제부터 어엿한 대학생으로 출발.
어떤 서클에 가입할까?
농구? 영화? 연극? 컴퓨터? HAM? 환경운동?
많은 친구도 사귀고. 이것 저것 다 해보고싶지만
한 서클밖에 가입할 수 없는 신입생 —
하지만 써클 "HiTEL" 이라면 걱정없습니다.
200여개의 동호회와 50만명의 하이텔 친구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하이텔의 열린 세계로 들어오세요.
각종 정보는 물론 더 큰 세계에서 새로운 친구와 함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는 하이텔 —
꿈많은 대학생활.
이제 "GO HiTEL" 로 힘차게 시작하세요.

한국PC통신이 여는 미래의 초대에 함께 하시려면—
● 이 용 료 : 월 9,000원(정액제,부가세별도)
● 가입방법 : 온라인, Fax, 우편, 방문, 가입지점장
● 자세한 사항은 080-022-1410(클로버서비스)로 문의바랍니다.
■ 014-10으로 접속하면 전화요금 30%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로 가입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정보문화의 꽃
한국PC통신
Korea PC Telecom Co., Ltd.